

PhD

경영학 박사과정

PhD

PhD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학 박사과정

- ◎ 3년 내 학위취득이 가능한 최적의 학사 스케줄
- ◎ 세계 최초, 세계 유일 '복수지도교수제'를 통한 학위논문 지도
- ◎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 3편 게재를 통한 박사학위 취득

aSSIST 경영학 박사과정은 각 산업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가시적인 경영학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첫 학기부터 Research proposal 작성과 연구 방법론 수업을 병행하여 그룹별 세미나와 개인별 논문 지도를 통해 3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학생이 희망하는 교수진을 직접 선정하는 '복수 지도교수' 제도를 통해 개인별 논문 주제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Features

○ 박사학위 소요기간 최소로 단축

- 3년 내 학위취득이 가능한 최적의 학사 스케줄
- 졸업생 중 절반 이상 3년 만에 학위취득

○ 세계 최초, 세계 유일 '복수지도교수제'를 통한 학위논문 지도

- 연구방법론은 주로 통계학을 전공한 학내 교수로부터 사사
- 전공은 세계 최고 전문가 10명을 선정한 다음,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사사

○ 객관적인 논문실적 관리를 통해 대외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 3편 게재(지도교수가 공동 저자가 됨)를 통한 박사학위 취득

○ 국내외 저명한 교수 초청 시스템을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교수진 운영

- 본교 전임 교수진에 한정된 수업이 아닌, 분야별 최고 교수진이 수업 진행

○ CEO 및 실무 전문가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심의 동문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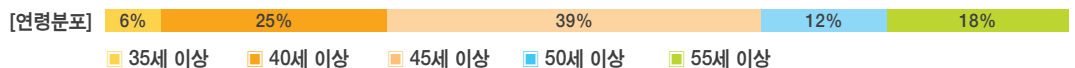
- 재학생 평균 직장 경력 20년, 금융/IT/교육/제조/유통/언론/문화예술 등 산업 전분야에서 활동
- 학위취득 이후에도 년 2회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총 동문회를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박사학위 취득자가 국내외 대학 교수로 채용되도록 취업전담조직 가동

○ 윤리경영교육을 바탕으로 12년 전부터 김영란법 적용(사제지간에 선물 접대 금지)

재학생 Profile

평균 경력 20년 / 평균 연령 48세 (2014~2015 입학생 기준)



Curriculum

- 수료조건
 - 2년(4학기) 수업연한 이수 및 총 36학점 취득

구분	이수학점	
연구 방법론	32학점	총 취득학점 36학점
경영학 전공		
연구 학점	4학점	

※ 단, 경영학비 전공자의 경우 추가 선수강 과목 이수가 부과될 수 있음
 ※ 학점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학위취득 조건

총 3편의 저널 논문 게재		
판단기준	3편의 저널 논문 중 2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편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최종결정	3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침	

※ SCI, SSCI, A&HCI에 1편 게재 시 졸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SCIE, SCOPUS에 1편 게재 시 등재학술지 2편으로 인정/ ※ 해외학술지는 등재학술지 1편으로 인정

학사일정

- 전체학사일정



[1st Year]

학기	1 st semester	2 nd semester
내용	▷ 연구 방법론 (▷ 논문지도)	▷ 연구 방법론 (▷ 논문지도)

※ 1st Semester부터 논문지도 가능

[2nd Year]

학기	3 rd semester	4 th semester
내용	▷ 경영학 전공 ▷ 통계학 실습 ▷ 그룹세미나 & 콜로키움 ▷ 논문지도	▷ 경영학 전공 ▷ 통계학 실습 ▷ 그룹세미나 & 콜로키움 ▷ 논문지도

※ 3rd semester 이후 '논문제출자격시험' 진행

[3rd Year]

학기	5 th semester	6 th semester
내용	▷ 그룹세미나 & 콜로키움 ▷ 논문지도	▷ 그룹세미나 & 콜로키움 ▷ 논문지도 ▷ 논문심사

Recommendations



고 현 숙 박 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앨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매 2년마다 인류가 가진 지식의 총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평생 학습자가 되길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배우길 좋아하는 제가 aSSIST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에게도 사고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대강 알던 것에서 철저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현상을 더 면밀하게 보고 엄정하고 보편적인 틀로써 그 현상을 해석하려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바, aSSIST 박사과정만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 학생들의 경험과 현업에서 얻은 지혜를 문제의식으로 살려서 학위논문을 쓰도록 지도해주는 실용적인 정신
- ▶ 모든 교수님이 학생들의 성취를 위해 협력해주고 의사소통하는 민주적인 구조
- ▶ 경영학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커리큘럼과 열린 마음의 교수진

교실에 학생으로 다시 앉아서 배우는 시간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하며 이 과정을 추천 드립니다.



김 해 동 박 사 | 비브라운코리아 대표

“CEO의 결정이 회사의 성패를 가른다” 그렇다면 회사의 지속적 성공을 위하여 CEO의 결정에 대한 사전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영환경에서 리더의 결정에 검증을 위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품질관리(TQC)에 노력하기 앞서, 전사품질경영(TQM)을 통하여 품질이 나빠질 여지를 배제하여 불량으로 인한 Cost를 사전에 줄이듯이, 최고경영자가 저품질의 결정을 내릴 여지를 사전에 배제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사전에 막는 것이 지속가능경쟁력(Sustainable Competitiveness)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aSSIST의 박사과정은 그룹의 미래 운명이 달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주관적 결정도출 Mechanism을 가지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는지 깨우쳐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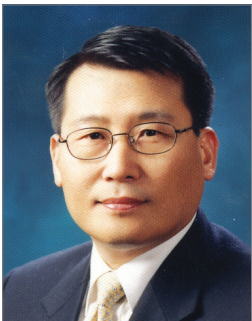
또 매 수업마다 느끼는 젊고 패기 있는 교수님들의 지식에 대한 내공은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을 경영해온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경영이론으로 많은 직원들을 혼란 시켰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즐거움의 으뜸인 깨우침을 즐길 수 있는 면허,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훨씬 큰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박사학위가 아닐까 확신합니다.



최 은 수 박 사 | MBN경제부장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익힌 지식을 누구나 인정해주는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가슴 떨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는 것을 철학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론화하고 이를 통해 학문과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aSSIST로 오십시오. 저는 주말을 반납한 지 2년 반 만에 박사 논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aSSIST는 뛰어난 교수들이 제공하는 연구방법론 강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교수 몇몇의 '편협한 논문 심사'가 아니라 학교 밖 등재지 게재라는 '열린 논문심사'로 실력을 시장에서 평가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10년 이상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학우들이 토론의 질을 높여줍니다. 제조, 금융, 연구소, 언론, 공기업,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학우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수와 학생이 팀제 또는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팀워크 스터디&콜로키움'은 aSSIST의 진수입니다. 논문작성의 모든 절차를 교수와 학생이 리뷰하고 의견을 제공해줍니다. 교수와의 유기적인 교류는 aSSIST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다양한 궁금증을 언제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 학자'에게 커다란 매력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보십시오!



서 영 태 박 사 | Quintessa Investment Co., Ltd. 대표이사

저는 aSSIST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경험한 경영활동의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기법과 과학적 접근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영현상들에 대하여 더 세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들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의 의사결정에서도 자신감을 더 키우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준비를 위하여 aSSIST의 교수진들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에 저는 가끔 감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동료학생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교류도 빼놓을 수 없는 큰 보람과 즐거움입니다.